

쿵다와 혼, 그리고 21세기

민영현*

- I. 머리말
- II. 쿵다와 한사상
 - 1. 쿵다의 뜻과 문화
 - 2. 한사상의 실제와 가치
 - 3. 쿵다 그리고 화(化)와 혼과 혐오
- III. 혼과 쿵다와 21세기 인문학
 - 1. 양자의 시대와 혼
 - 2. 혼의 인식과 그 의미
 - 3. 쿵다와 글로칼리티
- IV. 맺음말

국문초록

대개의 문화현상 속에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일정한 철학적 이해가 스며들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 '쿵다의 문화'는 새롭게 조망해 볼 철학적 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철학이 올바른 세계관과 인생관에 대한 학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쿵다'는 자신의 관점에 따른 지역 공동체의 바람직한 생활 문화로서 창달 전승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쿵다'라는 제주의 언어와 생활방식에는 혼이 말하는 사회모델과 인간 삶의 의미가 다양한 형태로 숨어 있다. 이로부터 '쿵다'는 한철학이 말하는 '하나 됨'이란 혼의 사유에 따른 실제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에 글은 '쿵다'의 현실적인 언어 용법과 그 이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m1117@chol.com)

해를 살펴보고, 해석학적 측면에서 접근해본다. 다음으로 한철학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대한 일반이해를 통해 콤다와 한문화의 연계성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사상은 다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을 요청한다. 여기에 한(恨)의 승화라는 과제와 혐오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제기된다. 혐오란 다름을 품는 올바른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배제의 논리기 때문이다. 배제의 논리란 결국 강자가 약자에 대해 갖는 일종의 차별화 전략으로 보인다. 품어 안고 싶지 않으며,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차별 의식에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이 올바르지 못함은 현대 양자물리학이 오히려 밝혀주는 바의 것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부정의 변증법과 긍정에 관한 상호 이해 역시 필요하다. 육지에서 흔히 정신적 승화와 관련하여, 동일한 제주의 특성이 '콤다'라는 생활언어 속에 숨어 있다. 나와 다른 타자를 감싸 안음의 철학이요, 다름의 인식이며 관용의 가치다. 이로써 나와 너는 우리라는 만남으로, 부정의 변증법을 초월한다. 여기서 화(化)의 상형이 강자와 약자가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보호하는 것임을 생각해본다. 이는 '우리로 하나 되는' 한철학의 실천이다. 만약 이로부터 '우리'를 이루게 된다면, 품어 안은 공동체의 질서는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콤다'는 한국적 한철학의 존재·인식·가치라는 체계와 만나고, 동일한 형태로 제주 살림살이의 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제주의 생활문화로서 '드르콤다'의 전통과 현실을 창출해 낸다. 이로부터 제주 콤다의 문화는 한사상의 어우러짐과 한(恨)의 정서와 만나, 가장 제주적인 특징을 반영한 공동체의 대응 전략으로 이해된다. 이는 마치 한민족의 집단 의식 가운데 잠재된 DNA와 같은 것이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품은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사회모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콤다, 제주, 문화, 한철학, 상호 이해

I. 머리말

지난 봄,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의 초청으로 바다 건너 남쪽 땅 파라다이스 제주를 찾았다. 그리고 학술회의장에서 ‘쿵다’라는 생소한 단어를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무지도 잠시 이어지는 연구자들의 발표 속에서, 일련의 언어생활 속에 감추어진 제주문화의 본바탕이 지닌 철학과 정신에 대한 강한 의문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후 육지로 돌아와 이를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실로 오랫동안 연구하고 확인해 왔던 한국 고유전통의 한사상 내지 한철학적 실천 가치의 사유 세계와 쿵다의 현실문화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동시에 제주가 단순히 육지와 떨어진 바다 건너 외딴 섬으로서만이 아니라, 갈라파고스와 같이 한국 고유전통의 문화 세계를 순수하게 간직해 온 특수한 지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갈라파고스가 자연 진화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모델이자 실험실로 다윈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제주의 쿵다’는 논자에게 한철학의 현실적인 연구실로 다가왔던 것이다.

이는 육지가 서구화와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고유한 한사상¹⁾의 순수함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제주는 실제 현장으로서의 독특한 의미를 지니면서 다가왔기 때문이다. 곧 육지에서의 혼의 사상과 문화 현상이 권력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역사적으로 변질되어 왔음에 비해, 제주 섬의 쿵다는 그러한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두고 순수한 형태의 ‘한사상적 살림살이 문화’의 모델을 남겨왔던 것은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쿵다’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글로칼리티의 측면에서 21세기 새로운 인문학의 모색과 현실이라는 주제와도 연결되어 많은 것을

1) 이 글에서는 한철학과 한사상을 구별하여 쓴다. 곧, 사회 문화 언어적인 생활의 현실과 결부될 때는 한사상이란 용어를, 존재·인식·가치 체계로서의 이론적 부분을 중심으로 논할 때는 한철학이라 하기로 한다. 이외 ‘혼’이란 용어를 독립적으로 쓸 경우, 이는 대개 한철학을 지칭한다. 기타의 용법에서는 ‘한(恨)’이나 ‘한(韓)’과 같이 한자를 붙여 그 의미를 나타냄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공할 수 있음을 느낀 것이다.

최근 양자역학은 새로운 과학적 이론체계로서 현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 세계관을 한철학과 서로 대비한다면, 恨(韓 一, 恨)의 철학은 단순히 헛된 구호나 고립된 문화 또는 철학으로만 남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형이상학의 측면에서 근원적 세계이해의 가능성을 지닌 보편 철학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다만 이러한 한철학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나간다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통사상이란 단순히 유·불·도에 한정해서만 논의할 수 없다. 한철학은 오래된 과거로부터 한민족의 문화 속에서 작동해 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제주의 상황을 본토 육지의 살림살이 문화와 전혀 별개라거나, 달리 완전히 접합된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한다. 일정한 환경적 요인이란, 본질적으로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의 차이 또한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 전체의 문화현상 속에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일정한 철학적 이해가 스며들어, 아니 기초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恨의 사유와 실제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쿵다의 문화’는 새롭게 인문학적으로 조망해 볼 충분한 의의를 지닌 철학적 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철학이 세계관과 인생관에 대한 학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바른 세계관의 문제는 정당한 삶이란 윤리적 측면과 맞물리고, 올바른 인간관이란 삶에 대한 우려와 고통을 감소시켜 준다는 데서 그 참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제주의 쿵다는 자신의 관점에 따른 지역 공동체의 생활 문화로서 창달 전승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글은 제주의 쿵다를 통해, 한철학이 말하는 ‘하나 됨’이란 의미의 또 다른 측면을 찾아가 본다. 쿵다라는 제주의 언어와 방식에는 恨에서 말하는 사회모델과 인간 삶의 의미가 다양한 형태로 숨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글의 전개는 우선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제주 ‘쿵다’의 현실적인 언어 용법과 그 이해를 먼저 살펴보고, 해석학적 측면에서 접근해본다. 만일 이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초점을 벗어난 것이라면, 이 글의 실제적인 학문적 가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

기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한철학의 세계관과 인생관 그리고 인간관에 대한 일반이해를 간략히 정리해본다. 이는 이후 한국문화에 나타난 여러 현상을 이해하고, 제주의 쿵다 문화와 한문화의 연계성을 찾아가 보기 위함이다. 후반에서는 오늘날의 글로칼리티 상황에서 현대물리학이 말하는 세계관과 한철학의 관점 그리고 인문학의 새로운 과제 등을 두루 천착하면서, 간략한 상호 이해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로부터 ‘제주 쿵다문화’가 갖는 21세기적인 사유의 가치와 그 실천적 의의를 ‘한철학’의 입장에서 조망해 보려는 것이다.

II. 쿵다와 한사상

1. 쿵다의 뜻과 문화

제주 토속의 일상 언어 가운데는 ‘쿵다’라는 용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생활문화의 의미 또한 그 속에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는 현재 단어 자체로는 잘 쓰이지 않으면서, 대개 ‘드르쿵다’라는 복합어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를 오늘날의 한글 표준어 개념으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외지인인 논자로서는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대개 쿵다는 ‘품어 안다는 의미로 사전적 정의가 이루어지는데,²⁾ 일상에서는 ‘드르쿵다’라는 말을 오히려 더 자주 쓴다고 한다. 곧, ‘드르’와 ‘쿵다’가 합해진 복합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마치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건드리지 않고 상대를 품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그러면 제주 사람 김준표가 설명하는 ‘쿵다’의 뜻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2) 어학 사전에는 간단히 ‘품다’라고 정의한다.(<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

“드르‘쿰다와 ‘싸다’의 의미를 두고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적당히 써서 내버려두라’는 의미보다 ‘한 칸에 던져두고 내버려두라’는 의미에 가깝기에 ‘두루싸다’보다 ‘드르싸다’가 바른 표현일 것으로 짐작된다. ‘드르’의 경음 발음인 ‘뜨르’가 ‘별판’을 뜻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드르’를 해석하자면 ‘넓게 펼치는, 팔을 뻗어 거리가 멀어지는 범위’ 정도를 뜻하는 접두어로 이해할 수 있다.”³⁾

여기서 글쓴이의 이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위의 인용에 대해 간단히 말해본다. 만일 제주어 ‘드르’가 별판이라는 뜻의 뜨르와 관련된다면, 이는 어찌면 통 크게 살지는 의미와도 연결될 수 있다. 더하여 ‘드르싸다’에서 싸다가 내버려 둔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면, 이는 경상도 말로 ‘고마, 놔두라’라는 의미와도 상통할 것 같다. 충청도의 ‘냅뒤요’까지를 생각하면, 이는 어찌면 한민족 고유의 정서 중 하나로써, ‘굳이 개입하지 마라. 또한 제 나름의 생활방식을 인정하라’는 의미 또한 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개입과 간섭을 통한 타율적 정체성, 다시 말해 자·타 구분의 명확함이기보다는 승인을 통한 느슨한 연대로서의 同化라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사실이다.⁴⁾

그런데 위의 인용에서는 ‘싸다’를 ‘내친다’는 의미로 보고 있지만, 이는 우리말 그대로 보자기에 왕창 집어넣고 두루뭉술하게 써서 통합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봄이 오히려 더 나올 것 같기도 하다. 곧, ‘싸다’를 꼭 ‘쿰다’의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쿰다의 보조어 정도로 이해해 보는 것이다.⁵⁾ 여기에 우리말 ‘어울림’이나 ‘어우러짐’의 의미를 개입해보면, 이는 결국 한국적 동체(同體) 의식의 하나인 한사상적 세계이해라는 중요한 인식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되기도 한다. 또한 ‘드르’

3) “김준표, 「다문화 사회의 정체성 트러블과 제주의 쿰다 문화」, 『현상과인식』 44/4, 2020. 219쪽(논문게재면 207-228). 이하 글의 진행에서 이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김준표, ~쪽)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4) 이는 마치 무정부주의에서 최소국가론을 말하는 것과 같다.(장동익, 『로버트 노직, 무정부·국가·유토피아』,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2017. 소개 글

5) ‘싸다’를 글자 그대로 풀이해본 것이다. 만약 뜻이 이와 다르다면, 이는 논자의 해석오류일 뿐이다.

역시 ‘울’이라는 공동체적 울타리의 의미로 보는 것이 한사상의 측면에서 더욱 그럴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논자의 무지를 깨우칠 수 있는 몇 가지 해설을 좀 더 찾아가 보기로 하자.

“관심으로 배려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배려하는 방식이 제주의 ‘드르쌍 내불망’ ‘쿵’는 문화이다”(김준표, 221쪽)

“궐당은 조직화된 실체가 아니라 개인마다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관계망이다”(김창민, 2020: 131) (김준표, 221쪽 재인용)

“전혀 친인척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삼촌으로 부르는 등 부계혈연 의식을 고집하지 않고 폭넓은 궐당관계가 맺어짐으로써 마을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김혜숙, 1999: 456)(김준표, 221쪽 재인용)

“혈연이어서 궐당이 아니라 함께 힘을 나눌 구성원들이어서 궐당이기에, ‘동네궐당’, ‘갑장궐당’(김창민, 2020: 265)(김준표, 221쪽 재인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이제 ‘드르쌍 내불망’과 ‘쿵’ 그리고 ‘궐당’까지, 쿵다와 관련된 제주의 여러 언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 사회 관계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왔음을 밝힌바, 여기에는 상당한 정도 이상의 문화 사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곧, 인간 심리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독특한 이해가 제주문화 속에는 자리하는 것이다.

더욱이 혈연을 넘어선 ‘궐당’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말 ‘울’의 개념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와 ‘울’의 상호 의미맥락은 이러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준다. 이들을 고려하면, ‘쿵다의 문화’는 사실상 세상살이에 대한 대응 전략의 하나로 제주인들이 받아들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하여 이러한 생활언어의 문화적 측면을 좀 더 깊이 이해한다면, ‘쿵다의 제주 언어 역시 고유한 한사상과 만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아마도 화산섬으로서의 제주의 자연과 사회적 현실은 삶의 터전 자체를 뒤흔드는 근원적 불안의식과 그에 따른 대응의 형태, 두 가지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은 외부와의 만남

과 침탈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다. 이는 유토피아적인 평화와 고립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외부와의 현실적인 접촉과 변화라는 문제의식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제주인에게는 외부세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제공된 대응 전략으로서의 방식이 ‘쿵다의 생활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은 아닐까 한다.

이 대목에서 한국문화 속에 내재한 ‘어울림’과 ‘함께 또는 같이 감시’의 철학적 의미를 떠올려본다.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 육지라는 개활지에서 살아가든, 이방인과의 조우 속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일반 심리는 ‘기대와 염려, 평화와 불안’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소위 텃세라고 부르는 것 또한 일련의 타자에 대한 심리적 대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육지든 섬이든 어느 곳이든 이런 텃세의 문화는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다름에 대한 이해와 받아들임의 문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자 할 때,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일련의 문화방식이 제공되어 대응의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바다를 표류하는 다른 것이 왔을 때, 이를 내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제주에서의 이런 문제는 역사적으로 훨씬 더 근거가 깊을 수도 있다. 반면에 육지 그리고 산촌의 경우, 이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산이란 찾아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섬이란 굳이 먼저 원해서 찾아 들어가는 곳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표류민들에게 있어 섬은 단순한 섬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육지이며, 땅이고 생존이기 때문이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를 선택할 수 있다. 아니 제주를 고향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배려와 관용의 아름다움을 통해 생명의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주의 상황에 대해 김준표는 정체성의 이해라는 관점을 동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버틀러의 고민을 예상이나 했던 것처럼, 마치 그에 대한 응답인 것처럼, 제주 사람들은 이질성을 ‘드르쿵고’(품어안고) 살아왔다. 제주의 쿵다 문화는 이질성을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이질적인 이주자들을 ‘드르쌍 내분다’(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둔다). ‘드르쌍 내불멍’(건드리지 않고 내버려두면서) ‘질루 질씩’(각자 자기 방식대로 자기 몫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벗이 되고 권당이 되어 ‘드르쿵는다’(품어간다).”(김준표, 224쪽)

제주의 정체성에 관한 언급이다. 그런데 논자는 위 인용의 이해 속에서 제주의 쿵다가 지닌 정체성이 ‘혼(韓)’의 ‘하나 됨’과 만나고 있음을 실제로 느끼게 된다. 아마도 ‘하나 됨’이란 생활문화는 개인의식과 공동체 관념의 동시적이면서도 공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더하여 아리랑과 결부된 한국적 한(恨)의 심리 역시 소홀히 하기는 힘들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한국적 ‘한(恨)의 정서’와 ‘쿵다’의 사유가 얼마나 가까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에 한사상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가 보기로 하자.

2. 한사상의 실제와 가치

제주의 ‘쿵다’라는 언어와 그 문화적 측면들을 앞에서 간략히 이해해 보았다. 그런데 간단한 이해만으로도, ‘쿵다’가 고유한 한사상의 문화와 엄청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글은 주목한다. 한국사상사 속에는 상당한 정도 이상의 한사상 또는 한철학적 이해가 자리하고 있고, 또 많은 학자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⁶⁾ 물론 지금도 한국사상계의 대체적인 시각은 전통적인 동양 삼교의 영향 아래 한국의 문화 전통이 수립 전승 창발되어 온 것으로 이해한다. 또 이를 정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국 정신의 배후에 숨겨진 고유성과 또

6) 고유의 ‘한’의 철학이란 고대 한민족의 생활 의식에서 싹튼 사상을 말한다.(김승동, 『韓國哲學史』, 부산대출판부, 1999. 48쪽) 이 외 김상일, 이을호, 최민홍, 안재홍 등 관련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는 깊이 연구하고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세계이해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유·불·도에 의한 한국의 전통문화란 기존 가설만으로는 한국사상사의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다. 새롭게 시작된 20세기 후반 이후, 오늘 물질문명의 창궐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한류(韓流)의 의미맥락을 이런 방식으로써는 더 이상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통 파괴에 상당하는 다양한 한국현대사회의 여러 모습과 양상을 단순히 유·불·도의 흔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는 유·불·도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적 정서 그 맨 밑바닥에 있는 한(恨)의 정서와 한철학적 세계관으로 설명할 때, 더욱 이해하기 쉽다. 더하여 집단단위의 형태로 자리해 온 한국인들의 ‘우리’라는 의식을 불러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한국적 문화현상들을 쉽게 설명하진 못한다. 다만 글의 분량상, 한사상이란 어떤 것인가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이에 관한 의미를 간단히 밝혀놓는 것으로 대신한다.

한사상이란 시기적으로는 환인 환웅 단군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화적 기원을 가진다.⁷⁾ 이후 이는 역사적으로 한국 민중의 생활문화 속으로 스며들어 다양한 한국적 문화현상을 기초하게 된다. 당연히 그 철학적 체계로는 일정한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의 이해를 지닌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사상이나 한철학에 대해서는 학계의 여러 반론 또한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적 사유의 핵심에 ‘한(韓) 또는 혼’이라는 범주적 개념의 사유체계가 일정하게 자리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이것이 전통적인 동양 삼교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인해, 학문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군 이래로 한국의 민중문화와 그 사상적 실현에 있어, 이것이 지닌 의의는 결코 소홀하지 않다.⁸⁾

7) 임승국, 『桓檀古記』, 정신세계사, 서울 1986. “桓은 하늘이란 뜻이 담긴 「한」으로 읽어야 한다”字音만을 고집해서 「환」이라 읽는 것은 잘못이다(표제)하였다. 이와 같이 한사상이 신화적 기원을 가진다는 사실은 거의 이견이 없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8) “한사상에 있어서의 妙術 또는 妙有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風流道야 말로 한철학의 진수라 이르지 않을 수 없다”(이을호/한기두 외, 『한사상과 민족종교』,

쿵다와 관련한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사상이 가진 가치 실천론의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핵심적인 의미는 공동체와 개인 또는 부분과 전체의 상호 작용에 관한 부분으로, 곧 한사상의 가치론과 문화에 대한 부분이 된다. 이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언급은 ‘弘益人間在世理化’⁹⁾요, 고운이 말한 ‘包含三教 接化群生’¹⁰⁾이 바로 그것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서술 속에 나타난 맥락 속에서, 우리는 한국적 ‘화(化)’라는 ‘됨과 이루어짐’의 의미를 만난다. 다시 설명하겠지만, ‘화(化)’의 정신이란 일상의 생활문화 속에서 구현된 한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한국의 전통문화 속에는 ‘나와 네가 서로 다르지 않고 우리로 만나는 문화’, ‘어울림과 어우러짐의 지혜’라는 통화(通化)의 세계가 펼쳐진다. 한사상은 일정한 개인주의적 요소를 넘어 전체 공동체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또는 개인의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와 동시에 개인의 절대적 권리 또한 확실히 담보하고 있음을 단군사화의 내용적 전개에서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¹¹⁾

이로부터 쿵다의 이중적 사유 또한 이해해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 잘 알지 못한다. 지금은 증오와 미움을 바꾸어 자기 마음속에서 정신적 승화를 이뤄내며 차원을 달리하는 정신세계로 확장시켜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 것인가? 한국적 한(恨)의 정서란 결국 정신적 차원의 승화라고 할 것인데, 이를 제주 방언 ‘드르쿵다’에서 찾는다고 하면 너무 앞서 나간 셈이 되는 것일까? 한(韓)과 한(恨)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며, 우리[—]이라는 개념에 따른 공동체의 원리가 된다. 거기에 삭히고 함께하는 어울림 곧 어

일지사, 서울 1990. 31쪽)

9) 『三國遺事』 卷一. 紀異 第一, 「古朝鮮」.
 10)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진흥왕조.
 11) “한국사상의 특징을 구조적으로 관찰하면 神人合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神本主義나 人本主義가 아니라 神人相化의 특성”(柳承國, 『韓國思想과 現代』, 동방학술연구, 서울 1988. 311쪽)

우러짐의 의미를 생성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한(恨)의 정서는 어느 한 순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도 끌어안은 것이다.

이것이 콧다의 의미와 얼마나 차이가 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이 같은 한사상의 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우선 한국적 ‘화(化)’의 의미와 ‘콧다’의 상호 개념에 집중해보기로 한다.

3. 콧다 그리고 화(化)와 혼과 혐오

나보다 더 낮고 강한 존재를 만날 때, 인간은 받아들여지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 자연적인 현상이며, 자신의 존재 지속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함에 순응함이란 거의 모든 자연 존재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약육강식의 문제다. 그러나 나보다 약한 존재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인간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함께 가야 할 사회적 공동체의 길에서 만일 약자에 대한 배척과 배제의 문화가 제공된다면, 이는 유지 존속시켜야 할 인간 공동체의 도(道)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흥익인간과 재세이화를 말한 신화적 세계관의 놀라운 점이 여기에 있다. 화(化)함의 철학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는 민족의 출발에서부터 지녀 내려왔던 한국적 집단 무의식 또는 민족적 DNA로 내려온 것임을 신화와 철학은 말하고 있다. 곧 사회적 상호 관계의 이로움을 찾는 것인데, 화(化)라는 글자 속에 그 이치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화(化)의 의미는 중국의 화(華)나 일본의 화(和)와는 그 의미나 전개 양상이 서로 다르다.¹²⁾ 때로 이는 한국의 문화가 중국·일본의 그것과는 다른 이유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개념으

12) 중국과 일본에 中華와 大和가 있다면, 한국에는 理化와 接化가 있는 셈이다.

로 이해되기도 한다.

신화에 나타난 재세이화(理化)의 화는, 널리 인간 사이를 이롭게 하고 신장할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세상에 있어서는 모든 이치를 다하여 화락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를 조화(造化)·교화(教化)·치화(治化)라는 삼화(三化)의 정신이라고, 대종교(大宗教)에서는 언급한다.¹³⁾ 여기서 화합이란 두 사람 사이의 음양적 호혜의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다.¹⁴⁾ 이는 글자의 상형에서도 알 수 있듯, 한 사람은 서 있고 다른 사람은 기대어 있다. 이로써 어우러짐과 이룸의 뜻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다. 다만 분명히 할 점은 서 있는 강자와 쓰러져 기대고 누운 약자의 모습이 ‘하나의 뒎’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인(仁)함의 의미로 발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리(理)를 일반적인 세상사로 확대하면, 그 속에 숨은 이치 즉 물리 윤리 법리 논리 상리(常理) 의리 명리 등등 만사 만물의 경우를 다 포괄하게 된다. 그렇기에 이를 신화에서는 ‘재세이화’라 한 것이다. 여기에 『난랑비서(鸞郎碑序)』의 ‘접화(接化)군생’이란 말은 생명 사상의 의미가 보다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 화함으로써 생생(生生)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하여 한사상적 의미에서 한국적 한(恨)의 정서를 또한 말해두지 않을 수 없다. 한(恨)¹⁵⁾이라는 한국의 정신적 승화의 원리는 ‘풀이’라는

- 13) 『桓檀古記』, 「三神五帝本紀」: “高麗八觀記 三神說 云
 上界主神 其號曰天一 主造化 有絕對至高之權能 無形而形 使萬物各通其性 是爲清真大之體也
 下界主神 其號曰地一 主教化 有至善惟一之法力 無爲而作 使萬物各知其命 是爲善聖大之體也
 中界主神 其號曰太一 主治化 有最高無上之德量 無言而化 使萬物各保其精 是爲美能大之體也”
- 14) 이을호, 『한思想의 苗脈』, 사사연, 서울 1986.; 2장 「회랑도」. 혹 이를 산 자와 죽은 자의 모습이라 하기도 하는데, 삶과 죽음이 같거나 또는 통째로 존재 양상 전체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견해 또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 15) 이러한 한(恨)의 개념은 아리랑의 예술철학 및 문화사상과도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한철학의 가치론 중에서 실천적인 의미로 활용해본다.

오래된 민속 내지 무속적 사유와도 만난다. 이것은 원역이나 증오를 잉태하기 위한 혐오라는 부정적이고 외부에 대한 투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한의 진정한 의미는 정신적 승화로서의 변질과 초월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인 이상 비록 미움과 분노를 갖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한은 다시금 이를 넘어서는 일이 된다. 따라서 이를 다른 의미로 관용과 푼레랑스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초월함으로써 함께 하는 이것을 우리는 ‘한국적 한(恨)의 문화, 즉 화(化)’라고 말한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배척함’과 ‘배척당함’이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속이야 썩는다만 그로 인해 가족과 공동체 모두가 편안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는가. 강자와 약자 둘 사이의 태도와 판단에 있어, 한문화적 화(化)함의 의미에 이치가 있음을 여기서 발견한다. 공동체 속에서 강자가 약자를 보듬어 안지 못하면, 어차피 약자의 원망과 저항은 계속될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 세상에는 이로부터 전투와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군림하려는 작용에는 반드시 튕겨냄의 역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는 오늘 양자물리의 기본 특성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다. 강자로서 약자를 보듬어 안는 이 같은 방식의 문화적 의미를 글쓰기가 제주의 콤다에서 발견했다고 하면, 과연 지나치다고 할 것인가?

경상도 방언으로 콤콤하다는 말이 있다. 조금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냄새는 마치 삭아서 썩기 직전의 상태이나, 맛으로는 발효식품 가운데서 맛깔 난다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 콤콤하다고 하면 좀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들은 결국 음과 양이 만나 차원이 다른 변화의 상태로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삭아야 한다. 변질은 변질이되, 이는 긍정의 것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변질과는 다르다. 따라서 콤은 콤콤하다는 의미에서, 삭히고 삭인다는 의미 또한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다는 되물린다는 다물(多勿)의 의미에서처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해 볼 수도 있겠다.¹⁶⁾

16) 『三國史記』. 「高句麗本紀」一卷 東明聖王：“二年 夏六月, 松讓以國來降, 以其

삭히고 회복함의 의미 속에서 자연의 순환과 재생이라는 시간적 변화와 차원의 승화를 연결해보는 것이다.

만약 ‘쿠파의 의미로 품어 삭힘이란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는 내면적으로는 다름에 대한 저항의 감정을 가지면서도 외면적으로는 품어 안는 이중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이것이 제주의 생활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라면, 이는 비록 싫어도 내색하지 않으면서 끌어안고 함께 가는 제주의 살림살이라는 사회 현상을 기초하게 된다.

개인화 개별화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 이것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나면, 개인이 이에 반하는 행위나 마음가짐을 가질 때 공동체 전체로부터의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반대로 당하게 되는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호오로는 비록 혐오의 마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를 대놓고 드러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함께·같이 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마침내 ‘쿠파의 문화가 승인하고 인정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비록 개인적인 호오와는 다를지라도 집단의 문화적 선택이 이같이 주어지면, 개인 또한 이에 협조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개인 즉 개별인권적 요소가 극성을 달리는 시대이다. 아마도 과거에는 제주문화의 특성상 드러내놓고 호오를 말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자주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제주가 더 이상 고립된 쿠파의 문화지역으로 존재하지 않고, 국제적 관광도시이자 자본주의적 사회 현상의 최일선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안녕과 존속을 위한 가슴앓이의 ‘쿠파보다, 당당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명쾌하고 더욱 낫다고 생각할 가능성 또한 훨씬 높다. 여기에 혐오 역시 등장하게 된다.

새삼 혐오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최근의 많은 현실적 상황 즉 난민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탈북난민으로부터, 제주

地為多勿都, 封松讓為主. 麗語謂復舊土為多勿, 故以名焉” 고구려 말에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 한 까닭에 그렇게 지칭한 것이다.

의 예멘, 진천의 아프간 심지어 코로나 확진 난민까지 생각이 미친다.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현실로 남혐이니 여혐이니 하는 사회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결국 이들은 다름을 품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름에 대한 개인적 호오에 있어, 사회 전체적인 측면의 정당성은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약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약자가 된다는 이중성을 고려한다면, ‘굶다의 함께 가는 정신’이야말로 사회적으로는 훨씬 더 수승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한(恨)의 가치와 실천은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다.

한사상은 이같이 다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을 요청한다. 그것이 한(恨)의 승화로 이어지는 성스러운 길이 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혐오란 다름을 품는 올바른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결국 배척과 배제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제의 논리란 결국 강자가 약자에 대해 갖는 일종의 차별화 전략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품어 안고 싶지 않으며,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차별의식에 기원하는 것이다. 아마 남혐과 같은 현상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며, 여혐이란 오래된 남성우위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의식이 올바르지 못함은 오히려 오늘의 양자물리학이 밝혀주는 바의 것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온 부정의 변증법과 긍정의 변증법에 관한 상호 이해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육지에서의 한의 정서 및 하나 됨의 승화와 관련하여, 동일한 제주의 특성이 ‘굶다’라는 생활언어 속에 숨어 있으며 아니 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본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 섬 지역 내의 동부와 서부 사이의 차이도, 마치 일본과 중국처럼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질성과 상호 의존의 문제를 차별이란 과제와 함께 이해할 때, 혼의 세계이해는 제주에서도 그대로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철학은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고 있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Ⅲ. 혼과 쿰다와 21세기 인문학

1. 양자의 시대와 혼

21세기, 시대가 바뀌었다. 세상도 변했다. 그러나 인문학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과 물질 세상에서 원리로 삼는 것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고, 그 이해의 측면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철학적 인문학에는 자연과 세계의 존재론적 이해라는 형이상학적 측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존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로부터 개인의 현실적 가치와 그 실천 과제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철학 체계는 대부분 존재·인식·가치라는 서로 연결된 이해의 고리를 가진다.

그런데 최신 물리학의 量子(Quantum)이론을 대입해야만 할 것 같은 지점을 여기에서 만난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실험과 검증이라는 양손의 무기까지 거머쥔 양자물리의 세계이해를 철학적 형이상학에서도 더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세계를 이해해 온 그 어떤 방식보다 현대물리학은 근원의 지점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 하지만 양자에 등장하는 이론들을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다.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은 보손과 페르미온¹⁷⁾이라는 두 종류의 양자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둘은 소립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자적 성질은 한 놈은 만나면 딱 붙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들로 늘 뭉쳐 있고, 다른 놈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성질을 자체에 내포하여 항상 떨어져 존재한다. 안정과 배타의 원리로, 자연의 기본성질이 이러한 것이다. 여기서 파울리의 배타원리에 따르면, 페르미온의 성질을 가진 전자는 같은 지점·동일한 위치에 함께 자리할 수 없다. 배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원자궤도 속에는 서로 다른 성

17) L.M.Ledermam · C.T.Hill/안기연, 『대칭과 아름다운 우주』, 승산, 2013. 293쪽.

질 즉 다른 스핀을 가진 전자만이 자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스핀의 쌍으로 채워진 하나의 궤도 속에 또 다른 전자가 오게 되면, 이는 아예 다른 궤도로 저 멀리 쫓아내든지 아니면 원래 있던 전자가 스스로 떠나서 궤도를 달리하며 자리한다. 즉 똑같은 놈인데도 서로 싫어하고, 심지어 자신의 성질마저도 바꿔버리는 것이다.

전자와 양성자의 수와 결합비례에 따라 원소는 각기 그 특성을 달리 하고, 수많은 원소가 이로부터 정해진다. 이런 과정에서 정해진 각운동량과 양자 요동의 불확정성을 따라 전자는 각기 다른 스핀을 지닌 채 궤도운동을 하거나 전자구름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양자 요동을 따라 일반적인 중력 법칙과는 다르게 전자는 핵으로 떨어지지 않는 양자 영역을 확보하고 원자라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보손에 속하는 광자란 놈은 무조건 뭉친다. 모이고 붙는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전자라도 자유전자 같은 놈은 제멋대로 싸돌아다니다가 다른 핵입자들이 뭉쳐진 양성자 아무나 만나면 붙어버리는데, 이렇게 자유전자가 하나의 자리에 정착하게 되면, 원래의 물질은 그 속성을 바꿔버린다. 새로운 물질 원자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 또한 자연의 법칙이다.

이로부터 이러한 양자가 입자냐 파동이냐, 아니면 점이나 끈이냐의 첨예한 물리학적 이해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¹⁸⁾ 태극 음양으로 말하자면, 음이란 놈이 양을, 양이란 놈이 음을 만나면, 서로가 딱 붙어서 떨어질 생각이 없다. 그런데 양이 양을, 음이 음을 만나면, 멀찌감치 떨어져 내 버린다. 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타 입자 페르미온인 전자의 경우는 서로 보기만 해도 충돌한다. 그러면서 아예 다른 놈 즉 빛을 내는 광자로 변해버린다. 가장 기초적인 전자기력의 원리이다.

그런데 빅뱅이란 우주 근원, 곧 하나로 존재했던 궁극의 자리다. 현대물리학은 이를 설명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앞

18) Peter Woit/박병철, 『초끈이론의 진실-Not Even Wrong』, 서울 승산, 2008: 307쪽. 14장. 초끈이론은 과연 과학인가?

의 보존과 페르미온마저 하나로 뭉쳐 있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다른 측면에서 자연의 4가지 힘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대통일 이론에 있어서도, 핵심은 이들 4대 힘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던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지금은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닌 플라스마 혼돈의 시절 QGP(Quantum Gluon Plasma)¹⁹⁾ 즉 빅뱅의 플라스마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현대 우주론이 말하는 태초의 모습이다. 여기에 양자(quantum)는 우주의 근원적 존재로 그 명칭을 부여받은 것인데, 핵심은 태초의 근원에서 모든 것은 하나였다는 점에 있다. 하나 즉 한[一]이란 점에서, 이는 한철학의 일원론적 세계관과 상통하는 것이다.

지금 현대물리학의 세계관은 철학적 형이상학을 대신하는 실제적 증거로써 오히려 역으로 차용되고 있다. 곧, 현대의 철학적 형이상학은 더 이상 물리학적 세계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철학의 존재론은, 만물이란 결국 일자의 다양한 모습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한철학의 인식론을 개입하면, 이는 만사 만물의 다양한 상태와 상황 그리고 양상 전체를 그대로 단일한 우주 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양자(量子) 역시 결국은 때론 점이요 때론 끈이며, 다르게는 때론 입자요 때론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동일한 것의 다른 양상이요, 다른 것들의 같은 양상이다. 여기에 선과 악의 구분은 없다. 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악이요, 악이라는 것이 사실은 선인 셈이다.

이원론적인 나눔이란 다만 인식을 위한 자·타, 곧 주체와 객체의 구분일 뿐이다.²⁰⁾ 여기서 저들이 결국은 동체(同體)의 다른 측면임을 인식한다면, 굳이 서로 미워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마도

19) "A quark-gluon plasma (QGP) or quark soup is a state of matter in quantum chromodynamics (QCD) which is hypothesized to exist at extremely high temperature, density, or both temperature and density."(<https://100.daum.net/search/entry?q=QGP>)

20) "인식의 진정한 출발점은 인식이 아니라 무지이며, 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다...인식의 결여에서부터 인식으로의 이행은, 사물과의 관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 상태로 바꾸는 인간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M.콘퍼스/이보임, 『인식론』, 동녘, 서울 1991. 140쪽)

무아의 경지가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다. 이와 같이 한철학의 존재·인식은 나의 대립 항에 자리한 존재가 단순히 다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음의 논리를 지니고 있다는데 그 이해의 핵심이 있다. 같으나 다르고 다르지만 같다는 도가적 모순 논리를 현실 속에서 인지함으로써, 한의 존재·인식은 출발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개의 이원론적 사유에서, 일방의 입장만으로는 저것이 이것을 침해하는 악으로 규정된다. 이에 이것은 저것에 대한 가열 찬 대응으로 상황을 전개하는 것이다. 변증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실제적인 삶의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자아 중심의 인간관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로부터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하게만 보이는 이러한 현실이 진정한 세계의 본질이 아님을 한철학은 말한다. 더하여 한국문화의 내재적 요인으로써 한철학이 자리하였음을 승인한다면, 그 존재·인식의 이론과 가치의 문제는 평등과 자유에 대해서도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하게 된다.

2. 한의 인식과 그 의미

철학은 대개 일원론과 이원론이라는 두 종류 형이상의 원리로 세계를 설명해 온 사상사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빅뱅의 시점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규정된다는 현대물리학의 추측은 형이상적 일원론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물론 이는 아직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일상적인 생활세계의 상황은 보편적으로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대칭성을 통해 그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이다. 곧, 원리적인 측면에서 본질로는 하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대대(待對)의 상대성을 지니는 셈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일원론과 이원론은 지금도 화해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주장한다.

그런데 지금 현대물리학은 최초 우주의 근원적 상태에 대해 주목하면서, 최신의 예측으로 하나의 플라즈마였던 상황을 말한다. 이는 물리

학적 형이상학, 즉 관찰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또는 볼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실험과 해석을 통한 접근의 결과다. 이에 반해 철학은 전통적으로 실험적 검증이 아닌 사유를 통하여 자신의 형이상학을 구성해 왔다. 결국 인간 지성은 지금의 나와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실험과 해석 아니면 사유라는 정신적 작업들을 진행해 온 셈이다. 이는 본질과 근원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현상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지적 욕망의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면 왜, 인간은 자연의 원리를 찾는 것인가?

이는 인간이 비록 사회적 원리를 따르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삶과 존재 자체는 근본적으로 자연의 기초 위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논하기 때문이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사회적 의미를 따르는 것이라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개인과 자연과의 직접적인 상호 관계에 달려 있다.

입자물리학이 말하는 보손과 페르미온의 두 종류는 모든 물질적 기초, 즉 근원에서 작동하는 소립자의 성질에 대한 분류다. 이로부터 물질의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운동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질에 기초한 인간의 정신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악과 호오라는 상반된 영역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순 없다. 하지만 빅뱅이란 이러한 보손과 페르미온이란 구분마저 없어지는 더 너머의 근원 즉 더 깊은 시점의 존재로, 이때는 모든 것이 하나였다고 말한다. 결국 다르다고 생각한 ‘우리 모두’는 ‘하나였던 그 무엇’으로부터 출발하여 여기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존재는 하나인데, 인식은 둘로 나뉜다. 주·객의 대칭성이 없으면 인식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주·객의 둘로 이해된 인식의 현실, 그 너머에는 모두가 하나였던 존재의 본질이 자리하고 있다. 한철학의 기본적인 세계이해는 이러한 ‘하나 됨’의 의미를 강화하면서, 그 사유의 증추에서 일련의 사상사적 과정을 진행시켜 온 것이다. 하지만 보손과 페르미온의 두 특성이 물리계의 기본성질로 밝혀진 이상,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여 삶을 논한다는 것 또한 우스운 일이다. 서로 멀어지

면서도 또한 합하여 가깝기를 바라는 것이 물질의 속성이라면, 이의 현현으로서의 인간의 물질적 삶 역시 가까우면서도 멀어지고, 멀어지면서도 가깝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과제는 이러한 이중성 사이에 내재하는 균형에 있다고 하겠다.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무너지는 것처럼, 관계의 긴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경도된다. 경도됨의 현실이 임계점을 넘게 되면, 결론은 붕괴일 것이다. 감정과 이성의 상호 관계 또한 그러하다. 무조건 감정적이어서 안 되겠지만, 지나친 이성주의 역시 올바르다고 하기는 어렵다. 마침내 문제는 적절한 감정과 이성의 긴장과 관계의 올바름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제 혼의 철학적 사유를 일상에서 찾는 경우, 한국어 ‘우리’라는 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개 혼이 말하는 ‘우리’의 의미는 ‘화(化)’나 ‘한(恨)’의 개념과 만난다. 또한 화나 한이 추구하는 현실적인 세상은 우리로 만나 어우러지는 대동(大同)의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의 이유는 자연의 원리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사람이 살만한 가장 아름다운 사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은 새로운 인문학적 발상의 전환으로, 보다 중요한 삶의 가치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감’의 의미를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그런데 우리로 어우러짐이란 혼의 주제 속에서 글쓴이는 새롭게 제주에서 ‘쿵다와 권당’이란 말과 풍습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로부터 사회적으로 전승해 온 제주 쿵다의 문화 역시 또 다른 한사상의 승화였음을 추론해보는 것이다.

어쩌면 제주의 쿵다가 비록 개인의 내면적 호오에는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문화적으로 생활화해온 제주의 살림살이는 그만큼 제주인들의 사람됨을 인간적이고 한국적으로 만들어 온 주요한 정신문화의 강력한 요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는 일련의 한국적 문화사상이며, 21세기적인 글로벌리티의 측면과도 연관되어 있다.

3. 쿵다와 글로칼리티

시대가 바뀌고 상황과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수없이 많은 과제와 난문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21세기 양자-역학(易學)²¹⁾의 시대다. 일찍이 플라톤은 덕(arete)을 말했고, 수천 년도 더 전에 동양에선 공(空)과 인(仁), 도(道)와 의(義)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지금 신(神)이 사라진 시대에서 인간들이 판단해야 할 많은 것들의 경우, 오류는 오히려 증폭하고 있다.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각각의 현실적인 이해 판단에 따라 많은 것이 정당함을 상실하는 것이다. ‘무엇이 진정 옳은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왜곡되고 전파한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글로칼 시대의 명암이다. 선동가들의 정치적 행위는 대중에 의해 부풀려지고 확대 재생산된다. 법에 의한 통치라는 법치의 참된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반성 또한 필요로 한다. 21세기 새로운 시대는 이미 물질적 파괴력의 위험성이 인간의 현실적 통제력을 넘어서 있다. 철부지들에게 흥기를 맡겨둔 것과 같아서,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의 생사가 타인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21세기는 공존과 평화의 문제를 말해야 한다.

개별적 자존감과 자기 보호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불가피한 실존적 상황 속에 인간들은 제각기 처해있다. 또한 이런 현실들이 서로 맞물려 다양한 인간 감정을 드러낸다고 할 때,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사회·문화적 작동 기제 역시 필요로 한다. 이는 단순한 요청 개념으로서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의 요구가 되는 것이다. ‘혼자로는 살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살면 그만큼의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또 다른 이중성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오래된 지혜로 남겨진 것이 아

21) 지금으로서는 이 용어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양자(量子)-기학(氣學)의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판단하고 있다.(萬民英閔中垣, 『三命通會』, 말벗, 서울 2021. ;서문)

마도 문화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인류의 문화는 글로칼리티(G-Locality)라는 융합과 융섭을 통한 세계민으로서의 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자연의 직접적인 위해로부터 일정한 자기 방어막으로 지탱해 온 것은 사회적 관계망이다. 이로부터 각 민족의 문화와 문명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파악하는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수용하면서, 이에 따른 최선의 대응으로서의 문화적 전략을 수립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현대 물질문명은 본질적인 물리법칙을 이해 수립함으로써,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영역을 보이는 영역으로 확대 재생산해 낸다. 이로부터 인간 삶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물상의 배후에 숨겨진 질서와 운동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물질세계에 대한 새로운 조작과 변화 응용을 가능케 한 바, 현재 이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의 해석은 양자 물리학에 근거한다. 다른 방면으로 정신세계는 보이지 않는 신적 본질의 영역을 접하면서, 새롭게 형이상학적 세계이해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이로부터 오래된 전통적 삶의 문화양식을 기초해왔다. 즉 세계의 본질에 대한 추론으로부터 다양한 삶의 양식들을 산출해 온 것이다.

그러나 근·현대사의 인문·사회적 상황은 정반합의 모순과 갈등의 논리로 부정 변증법의 사유체계를 보편화해왔다. 그리고 바로 이런 논리로 권력자들은 영원한 전쟁을 인민들에게 제공하고 동시에 요구해왔으며,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 개인과 집단의 이익에 따라, 논리는 왜곡되고 해석은 비틀어진다. 논리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윤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마저 망각하는 것이다. 더하여 이를 사회학적 원리로 확대함으로써, 변증법적 대립과 투쟁이라는 정치 논리를 개발해 온 것이 현대사에 있어 보수 진보의 대립이다.²²⁾

이 대목에서 동양 역학(易學)의 경우에도 太極(태극)과 陰陽(음양)이 또 한 다르게 이해되어왔음을 파악할 필요를 느낀다.²³⁾ 우선 태극의 문양이 음양의 어우러짐으로 하나의 일태극을 이루어 모든 존재·운동을

22) 이를 김준표는 부정 변증법의 불완전한 적용과 이해로 보고 있다. 곧 정반의 대립에서 배제의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앞의 논문, 217-218쪽)

23) 『三命通會』, 앞의 책. 「原造化之始」; “易疏云 太極謂天地未分之前 氣混而爲一”

일으킨다는 상수역학의 기론(氣論)을 떠올려본다. 대대(待對)의 원리 또한 태극에서 나오게 됨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대란 오직 충·격(沖擊)과 같은 대립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페르미온의 경우와 같이, 배타원리를 따른 결과다. 다시 말해 일태극(一太極)의 근원보다는, 맞서 있음이란 현상의 이해를 우선한 것이다. 이로부터 상대성에 따른 적대적 감정의 타당함을 불러온다. 바로 여기에 혐오 또한 등장한다.

최근 혐오는 서로가 짝을 지어 온전함을 이루려는 것보다, 단순히 끼리끼리 모여 움직이는 극단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본다. 남혐, 여혐, 일베, 대깨문, 육지와 섬 등등, 이루 다 열거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보복과 복수 그리고 혐오는 아마도 마음에 시원한 통쾌감 또는 명확성을 가져다줄지도 모른다. 여기에 타당함과 정의의 개념마저 개입시키면, 이는 마치 윤리적으로도 올바르다는 느낌을 던져줄 수 있다. 아마도 이를 자기 정체성의 문제로 치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우리 편만 남는다면, 과연 세계는·우주는 그것을 정당하다고 용인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태극음양과 일태극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타인을 대함에 있어 선악의 이분법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이는 항상 대립과 투쟁의 현실을 잉태할 수밖에 없다. 그 기본적인 형태는 나는 선, 너는 악이 될 뿐이다. 다름의 인정이 아니라, 다름의 적대화인 것이다. 그러나 입장을 바꾼다면, 상대도 나를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결국 되돌이표와 같다. 그런데도 이런 부정적 방식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방식으로는 인류의 현실로써 적대적 게임을 끝낼 순 없다. 바로 여기에 한국적 한의 철학은 오히려 긍정의 변증법이라 부를만한 세계 이해의 방식을 알려준다.

나와 다른 타자를 그대로 감싸 안음의 철학이요, 다름의 인식이며 관용의 가치가 된다. 이로써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만남으로 부정의 변증법을 초월하는 것이다. 화(化)의 상형이 강자와 약자가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보호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음을 다시금 떠올려본다.

‘우리로 하나 되는’ 한철학적 가치 실천의 해결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로부터 ‘우리’를 이루게 된다면, 품어 안은 공동체의 질서는 제 자리를 갖추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의 콧다는 상당한 정도 이상으로, 아니 거의 동일한 형태로 한국적 한철학의 존재·인식·가치라는 체계와 만나고, 나름의 한문화적인 제주 살림살이의 문화를 형성해 온 것으로 보인다. 곧, 흔의 존재론적 이해에 따른 인식의 결과, 이것이 현실 생활문화로서의 가치론과 만나 ‘드르콧다’의 전통과 현실을 창출해 낸 것이다.

다시금 콧다에 대한 제주의 설명을 본다.

“제주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렇게 이질성을 불편해하지 않는다.”(김준표, 222쪽)

“드르쌍 내불멍’ ‘드르콧는’ 제주의 콧다 문화는 서로 다른 정체성들이 만나서 처음 부딪치게 되는 충돌을 개의치 않는다. 외지인을 ‘드르콧은’ 이후에도 정체성 동일화 작업은 요구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질루 질씩’ (각자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몫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사람들은 같은 가족, 같은 권당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에 이러쿵저러쿵 참견하고 간섭하려고 하지 않는다.”(김준표, 222쪽)

이와 같이 콧다는 제주만의 ‘어우러지는 삶’의 태도와 문화를 정초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은 결코 소홀히 하기 힘들다. 이는 타지인을 타인으로써만 보지 않고 자화(自化)함으로써 제주의 포용력을 드러낸 것이며, 동시에 자신을 타자화함으로써 어울림의 영역을 확대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주문화의 저변에는 일정한 정신 즉 철학이 자리하고 있음을 또한 알려준다. 그 정신이란 결국 세계 존재와 그 이해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실천이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바, 곧 올바른데 대한 가치관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콧다의 사회 문화학적 함의를 확대 재생산해 나간다면, 이는 세계인과 함께 하는 한류(韓流)의 정신적 내면이라는 특징을 지역적으로도 밝혀내는 글로칼리티의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라 생각해본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너와 내가 만나 우리’로 승화하는 한사상의 지혜가 필요한 오늘이라 하겠다.

IV. 맺음말

존재의 사멸에 대한 공포의 관념은 실존철학에서 말하는 심우(心憂)라는 오래된 현대인의 병과 관련된다.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적 갈등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 지속에 대한 깊은 안도의 의식을 찾고자 한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시대의 삶은 더 넓고 깊은 사회적 관계와 그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권력과 왜곡된 변증법의 사회적 전개는 말이 통하는 동족으로서의 인간마저도 계층 아니 계급으로 분리하여 이를 공고화한다. 이로써 타인의 지배에 따른 질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곧, 사회적으로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통하여, 자신들만의 사회적 안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연적 관계에 따른 존재 위협은 여전히 남는다. 여기에 자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동양적 관념이 천인합일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곧 자연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고 이에 동화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존재성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자각이 동양인들에게는 일찍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사의 존재가 아닌 인간에게 생로병사의 현실은 그대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영생에 대한 가열 찬 투사는 진시황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서불이라는 방사에게 자신의 생명 연장을 맡기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불안의식에 대한 사회적·자연적 대응으로, 숭한 사례들이 등장하였다. 여기에 소위 약장사라는 용어가 지금도 버젓이 남아 있음을 보면, 인간 불안심리의 무한한 심연을 이해 확인하는 것이다. 결국 존재의 존재성을 뒤흔드는 여러 자연적·사회적 관계로서의 불안의식은 다양한 형태의 행위와 문화로 표출될 것이다. 이런 사회적 관계에 대한 문화적 대

응으로, 제주인들은 ‘쿵다’로써 그 의미를 정하고 이를 확장하여 대대로 살아온 것임을 확인한다.

이 경우, 쿵다의 의미는 철학적 존재·인식 그리고 가치론 및 사회적 대응과 자연에 대한 대처 방식의 문화 등, 여러 양상으로 나누어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글에서는 지역적 토속적 생활언어라 할 ‘쿵다’에 대해 화용론과 철학적 의미론 또는 개념 확장을 통한 문화해석을 시도해 본 것인데, 이는 지역 철학의 보편성을 찾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글은 쿵다의 한문화적 양상을 흔히 존재·인식·가치론의 영역과 결부하여 접근해 본 것이다. 이로부터 제주 쿵다의 문화는 흔사상의 어우러짐과 한(恨)의 정서 그리고 공동체의 유·불리에 있어 가장 제주적인 특징을 반영한 대응 전략으로 글쓴이에게 이해되었다. 더하여 제주의 쿵다 문화가 자연스레 새겨진 한민족의 집단 의식 가운데 잠재된 DNA와 같은 것임을 확인한다.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형태로서 제주의 한국적 사회생활 모델이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품은 철학적 사유의 결과로 파악해 본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는 지금, 쿵다와 같은 제주의 정서는 글로칼리티에 따른 훌륭한 미래적 가치를 지닌 인문적 감성의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후 한철학과 더불어 제주의 쿵다가 사회적 화해를 위한 중요한 문화적 동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原書

『三國遺事』

『三國史記』

『桓檀古記』

2. 단행본류

김상일, 『한사상』, 온누리, 청주 1986.

김상일, 『한철학』, 전망사, 서울 1985.

김승동, 『韓國哲學史』, 부산대출판부, 1999.

萬民英/閔中垣, 『三命通會』, 말벗, 서울 2021

柳承國, 『韓國思想과 現代』, 동방학술연구, 서울 1988.

이을호/한기두 외, 『한사상과 민족종교』, 일지사, 서울 1990.

임승국, 『桓檀古記』, 정신세계사, 서울 1986.

장동익, 『로버트 노직, 무정부·국가·유토피아』,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2017.

L.M.Ledermam · C.T.Hill/안기연, 『대칭과 아름다운 우주』, 승산, 2013.

M.콘퍼스/이보임, 『인식론』, 동녘, 서울 1991.

Peter Woit/박병철, 『초끈이론의 진실-Not Even Wrong』, 서울 승산,
2008.

3. 논문 및 참고 사이트

김준표, 「다문화 사회의 정체성 트러블과 제주의 쿵다 문화」, 『현상과인식』 44/4, 2020.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

<https://100.daum.net/search/entry?q=QGP>)

ABSTRACT

A Study on the New Human-ism with Kumda and Han in 21C

Min, Young-hyun *

In most cultural phenomena, there is a certain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human being. At this point, Jeju 'Culture of Kumda' is a philosophical theme to be viewed. Also considering that philosophy is a discipline in the right worldview and lifeview, 'Kumda' would have been developed as a desirable living culture of the local community in view of Jeju. In Jeju's lifestyle called 'Kumda', the social model that Han says and the meaning of human life are hidden in various forms. 'Kumda' shows a real phenomenon according to the reason of 'being one' of Han.

This article examines the realistic language usage and understanding of 'Kumda' from the hermeneutic perspective. Next, it is to find the connection between 'Kumda' and Han through the world view and life view of Han Philosophy.

Basically, Han-ism requires new recognition and practice of the difference. Here is the question of sublimation of grudges and understanding of disgust. It is hard to see hate in the right way of different things, because it is the logic of exclusion. The logic of exclusion seems to be a kind of differentiation strategy that the strong have for the weak. It derives from the sense of discrimination that I am superior to

* Ph.D. Pusan National University.

you and says that I do not want to hold you. But the fact that discrimination is not correct is what modern quantum physics reveals. In this respect, mutual understanding of dialectics of negative and dialectics of positive is also needed.

The characteristics of Jeju, which is the same as the spiritual sublimation of Han, are hidden in the living language of 'Kumda'. It is a philosophy of enveloping others who are different from me, and the recognition of difference, the value of tolerance. With the way of meeting 'me and you are us', we transcend the dialectics of negativity. The hieroglyphic of ㄷ(becoming) says that a strong and an weak lean on each other and protect them. This is the practice of Han Philosophy, which is 'to be one with us'. If we achieve 'one of us' from this, the order of the community together will find its place.

'Kumda' meets with the system of the recognition value of the existence of Korean philosophy, it has formed the culture of Jeju Salim-sali(I live by saving others) with the same way. The culture of Jeju Kumda meets with the harmony of Han-Philosophy and is understood as a response strategy of the communit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Jeju. This is like the latent DNA among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It will function as a new social model in the era of G-local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Key-words: 'Kumda', Jeju, culture, Han-Philosophy, mutual understanding

논문투고일 2021. 9. 24.

심사완료일 2021. 11. 2.

게재확정일 2021. 11. 16.